

“ 일요일에도 일하는 ”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 대회



일시

2024.7.15 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주영·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주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인사말

| | |
|------------------------------|----|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02 |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04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 06 |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8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0 |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12 |

증언 및 입법요구 발표

| | |
|--------------------------------------------------------|----|
| 증언1 이춘우 라한셀렉트 호텔 노동자 | 16 |
| 증언2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백화점) 노동자 | 18 |
| 증언3 김상숙 농협유통(농수산물마트) 노동자 | 20 |
| 증언4 ○○○ 엘코잉크(면세점) 노동자 | 22 |
| 증언5 송호일 웨딩스퀘어 노동자 | 24 |
| 증언6 윤미옥 동원F&B(협업업체 소속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 | 26 |
| 증언7 김상희 홈플러스(마트 판매직) 노동자 | 28 |
| 입법요구안 발표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이동호 유통산업노조 위원장·유통분과 의장 | 30 |
| 퍼포먼스 노동자 100인의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마련 목소리 _참여자 전원 | - |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인사말

인사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그간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비스노동자 주말노동의 가치와 주말휴식권 필요성을 국민께 호소드리는 게 오랜 꿈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 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 결과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면서 그 꿈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의 주말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총 2,721명을 조사한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한달에 일요일 근무를 아예 안하거나 1회 정도 하는 노동자는 약 1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2회 이상 일요일 근무를 하는 비율은 89.8%, 2회 이상 토요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92.4% 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 회복도 늦고, 일삶 만족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면장애의 문제, 우울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온한 일상, 즐거운 휴일을 위해 주말이나 명절, 공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서비스업 외에도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사회와 함께 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런 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흘대했습니다. 안락하고 풍

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말노동에 그간 아무런 가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요일을 위해 행해지는 근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휴일 노동은 최소화해야 하며, 꼭 필요해서 행해지는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 연속휴무를 주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힘든 노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대체 휴무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분명 사회적 저항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언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말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사연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서비스연맹은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든든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2024.07.15.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조합원 동지들과 오늘 증언대회에 함께 하고 계신 22대 국회의원께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주말이면 쉬는 일상, 금요일 밤이면 주중의 스트레스를 풀 겸 친구와 늦게까지 술 한 잔 하는 생활, 공휴일이면 앞뒤로 연차를 내고 애인·가족친지와 여행도 가는 삶, 이런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조사하신 〈서비스노동자 주말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범한 '주말'이 남 애기인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구에 비해 많은 노동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와 더 강도높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연맹만 해도 이런데, 공공업종 내지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 부지불식 간에 주말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 수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안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분야가 참 많습니다. △국민행복지수 △아동의 '삶의 만족도' △출산율 △평균 수면시간은 꼴찌이거나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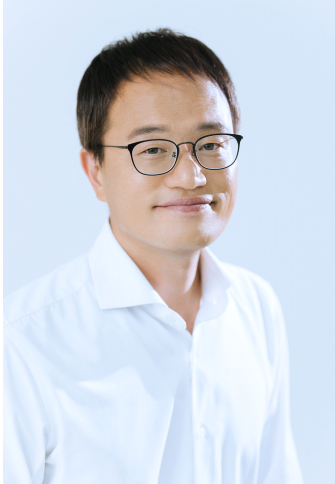
△연간 노동시간 △자살률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러한 지수가 좋지 않은 이유를 거의 평생을 주말에도 나가 근무해 오신 여러 조합원들의 오늘 증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주말휴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가 이미 오래전 안착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서비스연맹 동지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4.0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션 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증언대회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호텔, 리조트, 백화점, 농수산물마트, 면세점, 웨딩업, 마트협력업체,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노동자가 공동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경조사에 참여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주말 휴식은 육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상업과 사무에 대한 휴무 협약(106호 협약)에서 ‘7일의 각 기간중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계속되는 주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내 외의 여러 연구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서비스노동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조항의 주요 제정 목적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노동자가 주말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에 필수적으로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말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주말 근무가 필수적인 호텔과 관광서비스업 등에 해당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조건(호텔과 식당) 협약(172호)은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또는 국내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시간 또는 보수면에서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참가자들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박주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요구 증언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서비스연맹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개의 일요일’. 휴일에도 일해야만 했던 대형마트 노동자에게 12년 전 시행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일요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제도는 마트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안겨주며, 수많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유통산업의 위기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얻어낸 휴일을 빼앗고,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내몰며 노동개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주말 근무를 5회 이상 하는 노동자의 18.3%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겪고, 66.2%가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말 근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농·수산물마트, 호텔 등 유통 분야를 비롯한 관광시설 서비스 노동자, 필수 공공분야 노동자 까지. 주말 노동을 최소화 하고, 휴일에 일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증언대회에 100명의 노동자께서 모여 주신 만큼,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모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으로써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인천 서구 을 이용우 국회의
원입니다.

오늘 귀한 증언대회를 마련해주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강규혁 위원장님과
유통산업노조의 이동호 위원장님·관광레저노조의 최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현장발언
을 맡아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동주최에 나서주
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주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국회토론회
를 함께 주최했습니다. 활동가,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마음이 먹먹했습니
다. 정치권이 외쳐온 "섣 권리"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은 단순히 "주말에 쉬자"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
제는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시간을 결정할 "시간 주권"을 어떻게 확립하는지

에 관한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영역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인 "생활권"을 어떻게 확립할 지에 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시간 주권"의 정반대에는 "시간 빈곤"과 "소득 빈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여가가 항상 반비례 하지는 아닙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 일하는 시간이 휴일이라면 시간주권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 대형마트뿐 아니라 관광레저, 백화점, 농수산물마트, 면세점, 웨딩·카지노 등 다양한 노조 조합원님들께서 현장증언에 나서주십니다. 오늘의 증언대회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시간주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증언대회에서 모든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과 시간 주권, 그리고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

국회의원 이용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지난 6월 25일 주말 휴식권 토론회에 이어 오늘 100인 증언대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 인사 오셨다가 오늘은 공동개최 까지 해주신 김주영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토론회부터 같이 해주신 박주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론회와 증언대회 준비를 해주신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유통분과 이동호 의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론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주말에 일하는 유통, 관광 노동자 3천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로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규칙한 휴식, 주말 연차 사용의 어려움, 일과 생활의 만족도 저하, 휴식의 부족, 나쁜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연맹에서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한번은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대체휴무제 폐지로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해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침 증언대회가 열리는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론회를 거치고 나니 오늘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하고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인의 주말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정이 많습니다. 산악회 모임, 봉사 모임, 동문회 행사, 주로 일요일에 열립니다. 사회적 휴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대부분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제 더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 제 마음이 더 애뜻합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서비스연맹의 문제 제기로 저도 주말 노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토론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언대회를 계기로 사회적 휴식, 주말 휴식권이 더 공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비스연맹에 제안 해주신 법안도 오늘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공감과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

국회의원 정혜경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증언

증언대회



“34년차 호텔노동자, 평일 휴무여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휴식은 불가능”

- 이춘우 라한셀렉트 호텔 노동자 -

저는 호텔에서 조리부에서 근무한 지 34년이 된 호텔 노동자입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 근무 지역은 서울이었고 6년의 기간 동안 명절 때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대로 돌아가며 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주말에 친구들을 좀 만나기 힘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96년 결혼을 하려고 보니 자녀들이 생기면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 쉴 수 없는 상황이 큰 문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였고 울산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급호텔은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방 호텔들 중 주말이 조금 여유로운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연봉도 깎아가며 1996년 이직을 했습니다. 심지어 면접에서도 이직하는 이유를 “자식 노릇, 아빠 노릇 좀 더 잘 하려고 한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즈음부터 음식점에서 진행하던 결혼식을 특급호텔에서 하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유가 있던 호텔이 주말에도 많은 행사들로 인해 직원들이 쉴 수 없는 상황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휴식을 위해 이직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결혼식도 시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통의 가족행사나 모임들은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참석하지 못하거나, 저만 제외하고 식구들만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거

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당연히 못 오는 사람으로 되어 버렸고 가족 구성원들과 주말 휴식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인 일반 휴일과 저의 실질 휴일이 달라서,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근무처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중에 실시하던 상설 뷔페들을 주말에만 실시하다 보니, 일을 주중에 쉬고 주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근무 스케줄이 편성되어, 주말에는 본인 경조 이외에는 아무도 전혀 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노동조건들 때문에 점점 인력을 충원하기는 힘들어지고 이제 호텔업계는 3D업종으로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이제껏 생각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주말의 휴일과 평일의 휴일은 질적으로 많이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말휴식권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평일후무는 개인 휴식은 가능하지만 공동 휴식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휴일인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즉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은 가능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부부가 첫번째로 얘기한 부분이 '남들 쉴 때 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얘기할 정도이니,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되리라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말 휴식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화점 매장 판매직들 사이 주말휴무 눈치싸움… 국가 비상사태 ‘저출생’ 문제, 주말휴식 보장 없이 극복될지?”

-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백화점) 노동자 -

안녕하세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로레알코리아 지부장인 하인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다른 노동자들이 그렇듯, 백화점 노동자에게도 주말은 일하는 날입니다. 주말에 쉬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미리 정해둬야 하고, 그마저도 다른 직원과 겹치진 않을지 조율하고 눈치봐야 하는 일상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장에서는 주말 근무를 사이에 두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조금은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일부터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엔 아이돌 콘서트를 이틀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말에 일정이 많아서 못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 거겠죠?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그러면 백화점 노동자들은 콘서트를 0번 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한 번도 콘서트를 못 가봤다고 한탄하는 매장 막내는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게 무슨 죄라고 자기 또래들 다 가는 콘서트를 한 번도 못 가 봐야 한답니까?

우리는 주말휴식권을 '사회적 휴식권'이라고 말하죠. 사회적으로 남들과 같이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네, 어느 매장에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절친이었던 친구의 결혼식을 자기만 못 갔다는 조합원도 만났습니다. 6명에서 다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었다고 하는데, 혼자만 쏙 빠진 추억이 된 거죠. 이 조합원의 사회적 기억은 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백화점이 대신 채워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더군요. 국가 비상사태라면 적어도 애 낳은 사람들이 잘 키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남들도 애 낳고 싶은 생각이 들텐데, 백화점 노동자들을 보면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아들이 태권도 겨루기 선수인 조합원이 있습니다. 남들이 경기를 보러 와야 하니까 경기는 주말에만 하죠. 그리고 저희는 그 관객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다 와서 응원해 줬는데, 이 조합원은 자신은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엄마라는 자책을 계속 가지고 아들의 성장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매장의 조합원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이는 초등학생이래요. 주말마다 쉴 수 있는 백화점 노동자는 없죠. 아무리 많이 쉬어봤자 한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주말에,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나오면서 이 조합원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계속 났겠지요. 매끈하게 닦인 매장, 색색깔의 립스틱 사이로 혼자 있는 아이 얼굴이 지나갔을 거예요.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엄마들도 많습시다. 깍지 낀 손을 보면서 그 조합원은 마음이 아팠겠지요. 심지어 주말이면 백화점들은 연장영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아이 걱정에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출발했을 그 조합원의 뒷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연장영업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10시는 넘었을 거예요. 어찌면 아이는 먼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사이에, 아이는 혼자서 쭉쭉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걸 백화점 노동자라는 이유로 힘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엄마의 무력감은 얼마큼일까요. 매장 직원이지만, 엄마기도 한데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출퇴근을 합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함께 해야 할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놓쳐야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를 일하게 했던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빼앗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노동자가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휴일 출근날에 아이 맡기기도 어려워… 같은 직장 남편과 같이 쉬는 날, 한달 한두번 뿐”

- 김상숙 농협유통(농수산마트) 노동자 -

농협하나로마트 노동자 김상숙입니다. 저는 1999년 9월 마트노동자로 입사했습니다. 젊음의 리즈시절부터 근무하여 30대초반 사내에서 남편을 만나 지금은 두아이를 둔 엄마로, 입사 25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며 사내 부부 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부부들보다도 서로의 힘든 부분과 고충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판매장 근무로 휴일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행사나 명절 때는 2주 넘게 휴일도 없이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8년도에는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일 때문에 휴식이 부족하여 심장의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었고 지금은 생명 보조장치를 몸에 삽입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들쭉날쭉한 근무일정과 과로로 피곤한 얼굴을 볼 때면 불안해 마음이 줄여듭니다.

각자의 근무여건과 직원간 휴일의 조율관계로 저와 쉬는 날도 한달에 한두번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판매장 근무자 노동자에게 주말 휴일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5년 차 마트노동자인 저는 4년전 본사부서 발령 근무로 휴일 근무에서는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대직근무로 주말에 출근해야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로 편하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매장 근무 시절에는 휴일이나 주말 휴무가 어려웠을 정도가 아니라 규칙적인

평일 휴일조차도 꿈에 불과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러 한번 제대로 가줄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4명뿐인 가족 모두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려면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동료들 중 주변에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이 없이 휴일에 출근할 때는 하루종일 배달음식을 시켜주고 혼자 있을 때 무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차라리 학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 갈 수 있는 규칙적인 휴무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점심에 자장면이라도 먹으러 갈수 있는 주말 하루 정도가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형마트 일요일 월2회 휴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 일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찾아 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기 야박해지고, 모두 이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저 또한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이기적이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주말휴식 보장’, 이게 저 한사람의 바람은 아닙니다. 농협유통 2천여 노동자와 마트노동자의 권리이며, 엄마 아빠와 하루라도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이며, 손주 얼굴 한번, 자식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마트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가질 수 없었던 주말휴식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지켜 낼것입니다. 노동자이자 두아이의 엄마인 저 김상숙의 바람이 우리 농수산마트 노동자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근무로 육아 분담 안되어 가족관계 심각... 퇴사까지 고려 중”

- ○○○ 엘코잉크(면세점) 노동자 -

※ 증언자 사정상 엘코잉크노조 최상미 위원장이 대독합니다.

저는 10년차 면세점 직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 번의 시험관 시술 후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게 저에게 세상 누구보다 예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과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육아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주말 휴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제 남편은 평일내내 일하니 주말에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많이 출근을 하니, 남편이 저를 대신해 주말 독박 육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큼니다. 육체적으로도 주말에 못쉬니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받는 육아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됩니다.

어쩌다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함께 쉬는 날이 있으면, 가족이 함께 캠핑이라도 가고 싶은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쉴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사진을 내라 하는데 다른 집에 있는 그 흔한 가족사진을 한참을 찾았습니다. 함께 놀러가 찍은 가족사진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 중 엄마나 아빠가 빠진 사진뿐입니다. 면세점은 타이트한 스케줄 근무라 이틀을 연달아 쉬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쉬는 주말이 면세점 직원들은 꿈 같은 일 입니다.

어느날 선배 언니가 매장에서 울었습니다. 출근한 일요일날 그날은 선배 언니 남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나가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하다'는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럼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라고 하니, 다른 아이들은 일요일이라 엄마 아빠와 다 놀러나가 같이 놀 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곧 저에게도 제 아이에게도 있을 일이니까요.

저는 공항 근무라 어느 날은 아침 5시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저녁 9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육아를 고려한 스케줄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매장 동료들께 스케줄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말 하루라도 정기휴무가 주어진다면 자연스레 그만큼 공평해지고 눈치 보는 날이 줄어들어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아요. 팀장으로서 스케줄을 계획해야 하는 월말이 다가올 때와 완료된 근무표(근무 스케줄)를 남편에게 공유하는 순간은 매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저희 가정처럼 육아를 도와줄 조부모나 다른 대안이 없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면세점은 95%이상이 여성이 일하는 곳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으면 훨씬 육아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웨딩업에서 일해도 정작 내가 축하하고픈 결혼식 참석 못해… 한 달 한 번이라도 평범한 국민이고 싶습니다”

- 송호일 웨딩스퀘어(예식장업) 노동자 -

저는 웨딩업체에 일하는 송호일입니다. 제가 이 직종에 종사한 지는 26년 되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을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매우 보람되고, 고객들의 행복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마치 혼주의 입장에서 내 손님들 대접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신부 둘만의 잔치가 아닌 축하해주기 위한 하객들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예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작 축하해 주고 싶은 지인들의 결혼식에 제대로 한번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참석한 결혼식은, 제 결혼식과 친형제 자매의 결혼식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식을 주로 주말에 진행하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휴무는 꿈도 꿀 수 없는 ‘남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주말에 저와 같이 놀이공원 한 번 제대로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공통된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가족들과의 추억 또한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휴무일이 주말이다 보니, 크고 작은 모임들 또한 주말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입니다.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행사는 참석을 못하니 이제는 초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큰 맘 먹고 모임에 참석하면 지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반가워하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주말에는 쉬시지 않나요? 병원도 주말에는 쉽니다. 사람들이 주말에는 안 아파서 병원이 쉬는 건가요?

저희도 주 5일 근무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낼 수 없는 주중의 휴일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의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 회사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고 인력충원하면 우리도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눈치 보지 않고 맘껏 쉴 수 있는거 아닌가?, 왜 우리에게 이런 희생만 강요하는 걸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데…….’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회사에 요청하였더니,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 회사에서 나라가고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게 회사를 관둬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맘 편히 가족과 주말에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는데, 욕 먹을 만큼 잘못된 건가요?

저희 웨딩업 노동자들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아들, 딸, 엄마, 아파이고 싶습니다. 일년의 몇 번 만이라도 사람 도리 할 줄 아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업으로 선택했으니 희생하고 그냥 살아가라고 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웨딩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올해에 태어난 아이가 결혼할 때쯤 되면 외국인들이 진행하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생의 대한민국에서 저희 웨딩업 노동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희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 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타지에서 금요일 저녁에 귀가, 엄마는 주말내내 근무...해외 유학보냈다 생각해요”

- 윤미옥 동원F&B(협업업체 소속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 -

저는 대형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윤미옥입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의무휴업 변경, 폐지 기사를 보면 한숨과 눈물이 절로 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쉬는 평범한 일요일이 마트노동자인 저는 주말에 휴무시 사유를 보고 해야 합니다. 마트 특성상 가장 매출이 높은 주말 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편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던 일요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두 번 의무휴업으로 가족모임, 동창모임, 결혼식 등 마음 편히 참석할 수 있었고 온 식구가 모이는 일요일 가족과 밥을 함께 먹고 남편, 아이들과 카페에도 가고 영화도 보던 그 평범한 사람다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평범한 삶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 다시 가족 안에 외톨이가 될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 달에 4번 주말에 쉬어도 부족한 시간에 나라에서는 그 휴일조차 우리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랑 함께하던 두 번 일요일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가족의 삶, 사회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삶을 겪고 자녀들은 우리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까요? 현재 사회적으로 저 출산 시대에 출산을 저하 시키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주말 의무휴업을 없애는 정책을 펴는 분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요? 당신의 자녀가 내 가족과 주말을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그래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주말에 꼭 쉬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쉬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 다 당연히 쉬는 일요일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소소한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자녀가 학교생활로 타지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는데 엄마인 동료는 주말 내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런저런 학교생활 이야기도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여유롭게 나누고 싶지만 주말은 꼭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퇴근 후 늦은 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일요일, 엄마가 출근하면서 차려놓은 밥을 혼자 먹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채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내 새끼 따뜻한 밥한끼 함께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내 아이와 함께 하려면 방학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멀리 해외로 유학 보냈다고 생각해야겠다는 그 동료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저는 주말에 온가족이 행복하게 쇼핑하는 모습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마트 노동자입니다. 주말에 일을 해도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면 사람다운 삶도 못 이루고 혜택 받는 것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의무휴업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회와 정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갑자기 평일로 바뀐 의무휴업일, 항의해도 소용없어...”

- 김상희 홈플러스(대형마트) 노동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처음 마트 근무를 시작해서 2011년 홈플러스 직영 사원이 되어 14년 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희입니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말에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었습니다. 주말에 쉬기 위해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제비뽑기를 하고, 그러다 같이 일하는 동료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다반사 였습니다. 2012년 의무휴업이 2째, 4째 일요일로 지정되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긴 하지만 다른 직원들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을 편하게 갈 수 있었고 의무휴업일에 맞춰 지방에 있는 친정과 시댁의 가족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에게 주말 의무휴업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켜져 온 의무휴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의무휴업 폐지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으려 했고, 우리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앞장세워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홈플러스 동대문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 동대문구의 의

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과 입점업체 사장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고 제발 의무휴업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구청앞에서 피켓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은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의 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의무휴업이 변경된 직후 현장의 분위기, 직원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한달에 두 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밥도 먹고 마음 편히 나들이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일이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만 하나요? 워라벨을 추구하고 주 4일제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인데 왜 마트 노동자들의 시간은 거꾸로 역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더 이상 빼앗기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12년 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휴업제도입니다. 의무휴업제도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행복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지키고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마련 요구안

- 관광레저노조 최대근 위원장 · 유통산업노조 이동호 위원장 -

급속한 고용 유연화와 플랫폼 발달로 비표준적인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남들 쉬는 휴일도 평일처럼 일해왔습니다.

골프장, 웨딩업체, 숙박업소, 유원지 등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평생 주말과 연휴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호텔, 리조트처럼 24시간 업장이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면 야간노동에 주말근무까지 더해져, 노동자는 사회의 평균적 시간과는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농수산물마트 등 유통매장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도 매장을 여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은 365일 영업합니다. 지역의 하나로마트 같은 농수산물마트나 슈퍼마켓 체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은 고객이 많아 더 바쁘고, 평일 휴무일엔 매장에서 걸려 오는 업무 연락으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게 보내게 됩니다. 사회적 휴일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휴무일도 휴일답게 보낼 수 없다면, 이 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5일의 평일과 2일의 주말로 구성된 일주일, 이 강력한 구조는 사회 많은 분야의 시간

표를 결정합니다.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시간과 주말 이틀동안 여가와 재충전(재생산)의 시간을 갖도록 행정과 산업구조가 안착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공공의 기본적 필요 때문이라기 보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추구 때문인 경우가 서비스산업에서는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사회와 함께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주말이나 명절, 공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런 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홀대했습니다. 휴일과 주말을 아주 문제의식 없이 반납하라고 했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평일로 휴무가 대체한다는 핑계로 주말근무에 아무런 가치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노동자의 주말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보장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휴일의 노동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더 풍요로운 삶을 증진하는 법제도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많은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연맹 11만 노동자는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의 원칙인 ▲남들 쉴 때 다같이 휴무 ▲규칙적인 휴무 ▲지속되는 휴식, 이 3가지를 견지하는 다음과 같은 법제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하여 주말휴식권의 기본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5일을 넘어 주4일제의 요구가 있을 정도의 시대입니다. 연속하여 쉬는 주말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월 1회는 토요일, 일요일 연속 휴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공휴일 중에서도 명절과 어린이날 정도는 가족 등 사회관계 안에서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월1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만큼은 경제적 수익 증진만을 이유로 근로시킬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일요일과 (특정) 법정공휴일 연휴에도 꼭 노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휴일

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시 의무휴업일이나 정기휴점일로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건강’은 그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의 안녕함과 동시에 사회관계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마련 서비스연맹 요구 요약

- 주말휴식권 원칙**
- ▲ 남들 쉴 때 다 같이 휴무
 - ▲ 규칙적인 휴무
 - ▲ 지속되는 휴식

세부 내용

- ① 주휴일은 사회적 휴일=일요일로 지정
- ② 1주마다 1일 이상의 휴일 보장
- ③ 월 1회 이상을 포함한 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 보장
- ④ 공휴일 휴일대체 제한: 공휴일 중 1월 1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대체휴무 불가 공휴일로 지정(경제적 수익증진만을 이유로 근로시킬 수 없게 함)
- ⑤ 공휴일 휴일대체시 의무휴업일/정기휴점일로 대체 불가
- ⑥ 휴일근로시 요건 강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근로자 개인 동의, 휴일대체 15일 전 통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율 적용
- ⑦ 적용제외 규정 삭제, 단시간근로자/가사노동자/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노무제공자 포함 ⇒ 모든 노동자의 주말 휴식보장

참고

- ◆ 해외기준 및 입법례: ILO 주휴협약, 독일기본법, 독일 근로시간법, 프랑스 노동법전 등
- ◆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 연구 결과 토론회> 자료집 http://service.nodong.org/xe/kftu_05_02/601199

